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책을 표현창 합니다

2017년 9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28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9. 28.(목)	담당부서	통상협력총괄과
담당과장	김기준 과장(044-203-5680)	담 당 자	이정은 서기관(044-203-5681) 강연주 사무관(044-203-5684)

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에 민관이 적극 대응키로

- 민관 합동 「제5차 수입규제협의회」·「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9.28.(목)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**'제5차 수입규제협의회'** 및 **'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'**를 열어 최근 **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**을 공유하고, **민·관 합동의 대응 전략**을 논의했다.

<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>

▷ **일시/장소** : '17. 9. 28 (목) 14:30~17:30, 코엑스 아셈홀(201호)

▷ **참석자** :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(주재),
외교부·기재부·식약처 등 관계부처, 업종별 협단체, 무역협회·KOTRA 등

제5차 수입규제협의회

□ 오늘 **'제5차 수입규제 협의회'**에서는 주요 2개국(G2: 미국·중국))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**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**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, 전문가 등과 함께 **대응현황을 점검**하고, **수출영향** 및 **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**했다.

○ 특히,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**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영향 조사** 외에, '01.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**16년 만에 태양광 패널**(5.17) **및 세탁기**(6.5)**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**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**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**한 상황이다.

* 태양광패널 산업피해 긍정 판정(9.22), 세탁기 산업피해 판정 결과발표 예정(10.5)

□ 정부와 업계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**정보공유 및 민관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**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먼저, 현재 진행 중인 미국 **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**하고, 민관이 같이 **대응방안을 강구**하기로 했다.

- 정부와 철강업계는 **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**하여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**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** 및 **대응방안** 등을 함께 검토하고, **현지 공관·로펌 등과 공조**해 미국과 조사를 진행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.

* 그간 민관합동 TF 운영, 공청회 참석 및 서면의견서 제출 등 조사에 공동 대응 중

- 한편, 냉연·열연강판, 유정용강관(OCTG)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대미(對美) **주력 철강제품**에 대해서도 미국 국제무역법원(CIT) **절차,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**하여 **덤핑율을 낮추는데 주력**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미국 **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**하고, **산업피해 '긍정' 판정**(9.22일)이 나온 **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**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, 공청회 참석(10.3) 등 **무역구제 대응에 집중**하는 한편,

- 특히, 미국 **업계·의회 등 이해관계자**를 **대상**으로 **적극적인 아웃리치**는 물론, 필요시 **양자·다자 채널**을 활용해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(**세이프가드**)에 대한 우리 측 **입장** 및 **우려*를 지속 전달**하기로 했다.

*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부과시 태양광 설치 관련 일자리 88,000개 감소 가능, 세탁기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진행중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

□ 아울러, 미국, 중국 등 **주요 수입규제 발생국 소재 재외공관**에 **현지 법률회사 자문계약 체결** 등을 통해 **수입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**하고,

○ **재외공관 담당자(상무관 등)**가 현지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**집중 교육** 실시, **재외공관과 우리 업계와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** 등도 추진하고

*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: 美, 中, 印, 터키 등 주요 수입규제 제소국(14개) 재외공관 설치('16.8월~)

○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**'외국의 수입규제 총람'**(무역협회, 10월), **'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'**(코트라, '18.1) 보고서를 발간·배포하는 등 **수입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**해 나갈 계획이다.

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

□ 이어서 개최된 **'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'**에서는 **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**가 모여 **우리 기업**의 **해외진출**에 **애로**로 작용하는 주요 **비관세장벽 해소**를 위한 **대응방안**을 논의했다.

○ 정부와 업계는 최근 **비관세장벽 형태 다양화, 숨은 규제 증가** 등의 추세에 대응하여 민관이 **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**하고, **지속적**으로 **공동 대응**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.

*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(STC) 중 미통보 규제 비중
: ('12) 29% → ('13) 33% → ('14) 28% → ('15) 51% → ('16) 45%

□ 이를 위해 **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전무역관**을 **대상**으로 실시하는 **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**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**유망 신흥시장** 관련 **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 대응체계**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.

○ 우선, 최근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**유망 신흥시장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사례 조사** 등을 통해 교역·투자에 걸림돌로 적용하는 **비관세장벽**을 **발굴**하기로 했다.

○ 업계에 영향이 큰 **주요 비관세장벽 사례**에 대해서는 **국제규범 위반 여부, 외국 유사사례 대비 불합리성** 등 **심층분석**을 통해 **대응 논리를 마련**하고, **관계부처·업계** 등과 함께 **공동 대응**하기로 했다.

* 비관세장벽이 1) 법령·제도와 관련된 경우 양자·다자 및 민간채널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고, 2) 해당국 관행과 관련된 기업 애로는 공관·무역관 등을 통해 현지 신속 대응 추진

□ 한편,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제통상·경제·법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**「무역기술장벽(TBT) 정책포럼」**(9.26일 발족)을 통해 **업계, 학계 등 전문가**와 **긴밀히 소통**해 무역기술장벽 **대응의 전문성을 높이**고, **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정책보고서 발간,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**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.

○ **식품의약품안전처**는 중소 화장품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**'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'*** 개설('17.8월), **중국 진출 화장품기업 대상 현지 설명회**(9.26., 중국) 등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, 대(對)중국 애로사항은 식약처-중국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.

*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지원센터(www.helpcosmetic.or.kr) : 국가별 수출, 법령, 원료(사용제한원료 등) 정보 등 수출을 위한 정보 총 망라

□ 마지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의 수출애로 해소 사례를 소개하고, **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이해도 제고** 및 **대응역량 강화**를 위해 **주요국 비관세장벽 특징을 분석**하여 **사례별 대응전략 세미나**를 **개최**(17.12월)하기로 했다.

< 17.상반기 코트라 무역관 현지 대응사례 >

✔ **(애로사항)** 베트남 동나이세관은 플라스틱수지(HS 3907.99) 성분 소량 변경 및 제품명 변경을 사유로 HS코드 변경을 주장하며 원산지증명서(CO) 적용 거부

✔ **(대응현황)** 호치민무역관에서 애로 접수, 해당기업 컨설팅을 통해 동나이세관 상대의 소명 지원 → 기존 HS코드 및 원산지증명서(CO) 인정

* 원산지증명서 인정 거부로 특혜관세 적용받지 못할 경우 관세율 5% 증가

✔ **(성과)** 기(旣)납부한 관세(10만 달러) 환급절차 진행 중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이정은 서기관(☎ 044-203-5681)과 강연주 사무관(☎ 044-203-56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